

# 민병준 교장선생님 퇴임식



편집부 매아리 10기 이 윤 섭

1999년 8월 31일 개학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날에 민병준 교장선생님 퇴임식이 있었다.

강당공사로 인해 좁아진 운동장, 전날 쏟아진 비로 질퍽한 운동장과 선선한 날씨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민병준 교장선생님의 퇴임식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송축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례로 시작되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퇴임식은 보통때처럼 애국 조회의 절차를 밟으며 민병준 교장선생님의 약력소개와 가족소개가 있는 후 민병준 교장선생님의 손자, 손녀와 전교 회장, 부회장이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공로패와 외부 기념품 증정이 있었다. 그 후 이강희 이사장님의 송축의 말씀과 교직원 선서 등 여러 송축인사들의 말씀이 있었다. 학생 합창단과 어머니 합창단의 송축가로 이어진 퇴임식은 벌써 1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두 곡의 송축가가 있는 후 민병준 교장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퇴임사가 있었다.

민병준 교장선생님의 퇴임사가 있는 후 재학생 모두

는 아쉬움과 설렘함을 느끼며 스승의 노래를 제창하였다.

스승의 노래가 끝난 후 인항 고등학교의 자랑거리인 불링부과 씨름부 우승기를 이사장님께 반납하였다.

그리고 민병준 교장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으실지도 모르는 교가제창이 있었다. 이 날의 교가 제창은 보통때의 애국조회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이 교가제창을 마지막으로 장장 2시간의 퇴임식은 끝마쳤다.

1988년 3월2일 인천 항운 노동조합의 근로자 분들이 인항 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당시 초대 한성완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인항 고등학교를 지도하시던 민병준 교감 선생님은 5년 뒤, 제 2대 교장선생님이 되었다. 민병준 교장선생님께서 11년동안 인항 고등학교에 계시는 동안 인항 고등학교는 학업성적과 예·체능계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처럼 인항 고등학교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많은 노고가 있었다. 이러한 노고를 기리기 위한 것은 공로패와 기타 기념품으로 남았지만, 민병준 교장선생님의 영로운 퇴진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에 있을 것이다.

매아리

